

문화

교육 2017년 4월 기준 유치원 710개소에 3만9천836명, 초등학교 468개교에 12만7천642명, 중학교 262개교에 6만5천906명, 고등학교 188개교에 8만4천926명, 전문대학 16개교에 4만3천982명, 대학교 18개교에 15만9천290명, 대학원 78개교에 1만2천942명, 기타 4개교에 7천927명 등 총 1천744개교에 54만2천451명이 재학 중이다.

종교 교회 2천870개소, 성당 119개소, 사찰 2천139개소, 기타 93개소 등 5천221개소의 종교 시설이 있다.

문화재 국보 57, 보물 328, 사적 99, 천연기념물 68, 명승 15, 중요 민속문화재 89, 국가무형문화재 12, 등록문화재 38 등 국가지정문화재 678점이 있다. 도지정 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442, 기념물 152, 무형문화재 36, 민속문화재 158 등 788점이 있으며 문화재자료 555점 등이 관리되고 있다.

문화시설 공공도서관 64개소, 박물관 67개소, 미술관 11개소가 있다.

문화·축제행사 2017년 개최한 주요 문화·축제행사로는 대계축제(영덕 4월), 대가야체험축제(고령 4월), 전통차사발축제(문경 4월), 산나물축제(영양 5월), 영주선비문화축제(5월), 보현산별빛축제(영천 7월), 자두체험축제(김천 7월), 은어축제(봉화 7월), 국제별빛축제(포항 7월), 오징어축제(울릉 8월), 갯바위소원축제(경산 9월), 이야기축제(상주 10월), 반시축제(청도 10월), 풍기인삼축제(영주 10월), 사과축제(청송 11월) 등이 있다.

관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석굴암, 불국사를 비롯한 700점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주왕산 국립공원 등 7개 국립공원과 9개 도·군립공원, 25개소의 해수욕장, 25개소의 자연휴양림, 90개의 온천, 37개소의 관광지, 청정해역 울릉도가 있다.

의정활동

원구성

〈의장〉 김응규

〈부의장〉 고우현, 장두욱

〈정당별 의석〉 2017년 12월 31일 현재 자유한국당 56, 더불어민주당 2, 무소속 2명이다.

상임위원회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정보건복지, 문화환경, 농수산, 건설소방, 교육 등 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윤리, 지방분권추진, 원자력안전, 독도수호, 대구공항이전, 저출산·고령화대책, 경북·대구 상생발전, 지진대책 등 9개의 특별위원회가 있다.

회기운영 총 회기는 7회 125일간 의회를 운영했으며, 정례회는 2회 60일, 임시회는 5회 65일을 운영했다.

도정질문·의안처리 도정질문은 15명 53건이었으며, 안건 처리는 241건으로 조례·규칙안 168건, 예산·결산안 10건, 동의·승인안 24건, 결의안 등 39건을 처리했다. 도내 84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서민경제 안정에 중점을 둔 의정활동 전개 전반기 '도민에

게 편안한 의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후반기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정책중심 의회운영으로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실현 제10대 전반기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운동과 전남도의 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지역사회 각계각층 100명으로 구성된 경상북도의회포럼을 출범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했다.

후반기 도의회는 재난현장, 전통시장, 주요 사업장 등 현장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했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도정현안 특위 가동, 정책연구 활동, 불필요한 조례 일제정비,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협약 등 정책 중심의 의회 운영에도 힘썼다.

조례·규칙안 168건, 예·결산안 10건, 동의·승인안 24건, 결의안 39건 등 총 2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경상남도



道花 : 장미 **道鳥** : 백로

道木 : 느티나무 **캐릭터** : 경남이와 경이

도청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도지사 권한대행 : 한경호(韓經浩)

개관

연혁 삼한시대에 북부는 진한, 남부는 변한의 영토였다. 서기 42년 김해의 금관가야가 경남 전역을 장악한 이후 가야문화가 발달했다. 법흥왕 19년(532년) 신라에 병합된 후 신라 9주 5소경의 일부인 양주(良州)와 강주(康州)가 됐다.

고려 예종 1년(1106년) 경상진주도로 개칭됐다가, 충숙왕 1년(1314년) 경상도로 처음 불렀다. '경상'이라는 지명은 고려 때 이 지방의 대표적 고을인 경주와 상주의 머리글자를 합해 만든 지명이다.

조선 고종 33년(1896년) 전국을 13개 도로 나눌 때 경상도에서 경상남도가 분리됐다. 도청소재지는 진주였다가, 1925년 4월 1일 부산으로 이전했다. 이후 1963년 1월 1일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경상남도에서 분리됐으며, 1983년 7월 1일 도청이 부산시에서 현재의 창원시로 이전됐다. 1997년 7월 15일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경상남도에서 분리됐다.

경남도청이 일제강점기 때 진주에서 부산으로 강제 이전된 지 90년 만인 2015년 12월 17일 진주시에 경남도 서부청사가 개청됐다.

면적·행정구역 총면적은 1만539㎢(전국의 10.5%)이다. 800여 개 섬이 경상남도 전체 면적의 8.9%를 차지한다. 2017년 말 기준 인구는 345만6천584명(내국인 338만404명, 외국인 7만1천180명)이며, 행정구역은 8시, 10군, 314읍·면·동이 있다.

(2017년 12월 말 현재)

구분	면적(km ²)	가구(세대)	인구(명)		
			계	내국인	외국인
합계	10,539.68	1,406,011	3,456,584	3,380,404	76,180
창원시	747.67	420,517	1,072,657	1,057,032	15,625
진주시	712.96	142,865	351,547	346,681	4,866
통영시	239.86	58,941	139,525	135,833	3,692
사천시	398.64	51,348	117,365	114,252	3,113
김해시	463.36	204,894	550,758	532,132	18,626
밀양시	798.64	50,597	110,395	107,898	2,497
거제시	402.74	101,279	263,162	254,073	9,089
양산시	485.41	135,821	344,450	338,535	5,915
의령군	482.86	14,436	28,624	27,849	775
함안군	416.6	31,076	71,822	68,207	3,615
창녕군	532.86	31,256	66,517	64,101	2,416
고성군	517.93	25,827	55,471	54,060	1,411
남해군	357.57	22,135	45,476	44,642	834
하동군	675.62	23,805	49,386	48,831	555
산청군	794.82	18,740	36,971	36,340	631
함양군	725.48	19,915	40,582	40,175	407
거창군	803.2	28,353	63,290	62,763	527
합천군	983.46	24,206	47,542	47,000	542

재정

2018년도 경상남도 총예산은 7조2천79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조6천421억원, 특별회계가 6천377억원이다.

세입내역은 지방세 2조5천628억원, 세외수입 1천463억원, 지방교부세 4천408억원, 보조금 3조8천188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천111억원이다.

세출내역은 일반공공행정 7천75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2천152억원, 교육 5천566억원, 문화 및 관광 2천154억원, 환경보호 3천463억원, 사회복지 2조8천803억원, 보건 1천259억원, 농림해양수산 8천261억원, 산업·중소기업 1천913억원, 수송 및 교통 3천45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3천293억원, 과학기술 28억원, 기타 4천697억원이다. 도민 1인당 도세 부담액은 75만8천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5.6%이다.

중점 추진사업

기획·조정분야 2016년 채무 제로를 달성한 경상남도는 2017년 재정 안정화에 주력했다. 미래 주력사업으로 추진하는 항공국가산단과 나노융합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2017년 12월 진주시·사천시·밀양시·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상호협력 약정식을 가졌다.

기업·고용분야 133개 사업 13만4천 개의 일자리 창출에 도정 역량을 집중했다. '경남형 기업트랙'과 '경남형 하이트랙'을 통해 도내 대학생과 고등학생 1천220명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

(단위 : 백만원)

항목	예산액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7,279,761	6,642,114	637,647
지방세	2,562,763	2,562,763	-
보통세	2,062,145	2,062,145	-
취득세	1,313,845	1,313,845	-
등록면허세	102,502	102,502	-
레저세	88,698	88,698	-
지방소비세	557,100	557,100	-
목적세	496,245	496,245	-
지역자원시설세	75,132	75,132	-
지방교육세	421,113	421,113	-
2017년도 수입	4,373	4,373	-
세외수입	146,345	75,754	70,591
경상적세외수입	33,887	33,712	175
임시적세외수입	112,458	42,042	70,416
지방교부세	440,778	420,169	20,609
보조금	3,818,791	3,416,531	402,26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11,084	166,897	144,187

(단위 : 백만원)

분야	예산액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7,279,761	6,642,114	637,647
일반공공행정	775,330	775,330	-
공공질서 및 안전	215,249	135,761	79,488
교육	556,562	523,413	33,149
문화 및 관광	215,399	215,399	-
환경보호	346,297	346,297	-
사회복지	2,880,255	2,406,607	473,648
보건	125,912	125,912	-
농림해양수산	826,078	826,078	-
산업·중소기업	191,283	172,194	19,089
수송 및 교통	345,633	327,166	18,467
국토 및 지역개발	329,311	315,615	13,696
과학기술	2,766	2,766	-
예비비	32,001	32,001	-
기타	437,685	437,575	110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취업기반을 구축했다.

구직·구인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및 도·시·군 합동 권역별 채용박람회(2회)와 대학생 취업멘토링 콘서트를 개최했다. 750명의 구직자에게 맞춤형 교육훈련을 받게 했고, 산·학·관이 협업한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 사업 추진을 통해 총 1천900여 명을 지원했다.

경제·통상분야 2019년 완공 예정인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을 이어갔고 2018년에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13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노후 아케이드·전기소방시설 등 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특성화시장 육성 등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도 추진했다.

농정분야 2015년 발표한 '혁신,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수정·보완했다. FTA(자유무역협정) 확대와 농촌인력 고령화에 대비하고,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20년까지 4조3천737억원을 투자해 10개 분야 50대 전략과제, 150개 단위 사업을 설정한 프로젝트다.

해양·수산분야 어업 외 소득기반의 확충을 위해 어촌체험마을 24개소를 지원하고 38개소를 대상으로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했다. 72개 지방 어항에 대해 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를 했다.

고수온, 적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했고, 미 FDA의 수출용 패류생산 해역에 대한 위생관리 점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대미 굴 수출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2020년까지 도내 6개 항만(통영·삼천포·옥포·장승포·진해·하동항)에 국비 1천746억원을 투입하는 환경 및 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환경·산림분야 2017년까지 총 115건의 환경분쟁 현장을 찾아 무료 중재로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없애고 불편을 해소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에 5천239억원을 투입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했다.

상수도시설 확충과 노후 수도관 개량에 1천238억원을 투입해 상수도 보급률을 93.6%로 확대하고, 하수처리시설 및 관로 정비에 2천13억원을 투입해 하수도 보급률을 88.9%까지 확대했다. 산림자원 가치 제고를 위해 조림사업 2만5천697ha에 515억원, 산림휴양·치유 기반시설 13개소 126억원, 산림경영 선진화를 위한 임도시설 341km 127억원을 투입했다.

도시·교통분야 창원시(옛 마산) 도시재생사업에 47억원(국비 20억원, 도비 6억원, 시비 21억원)을 투입해 부림 도심공원, 불종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했다. 김해시 도시재생사업에 41억원(국비 8억원, 도비 2억원, 시비 31억원)을 투입해 다어울림광장 조성, 가락로 통행체계 개선 사업 등을 추진했다. 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창원시 월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11개 사업에 116억원(국비 57억원, 지방비 59억원)을 투입했다.

2017년 정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총 6개소[경제기반형 1곳(통영), 중심시가지형 2곳(사천·김해), 일반근린형 1곳(밀양), 주거지원형 1곳(거제), 우리동네살리기 1곳(하동)]가 선정돼 1조3천317억원(국비 823억원, 지방비 914억원, 부처연계 3천103억원, 공기업투자 1천350억원, 민간투자 7천100억원)을 확보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2017년 1월 1일부터 경남형 벽지교통 정책 '브라보 택시'의 1단계 사업(401개 마을)을 시행했다. 사업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과 주민 만족도 조사를 거쳐 7월부터 2단계 사업(515개 마을)을 진행했다.

안전건설분야 재난 예방을 위해 도내 관리대상 시설인 특정관리대상시설 6천522개소, 시특법 대상시설 4천827개소, 수상안전시설 38개소, 어린이놀이시설 3천945개소, 승강기시

설 3만6천194개소, 기타시설 333개소의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도·시·군 방재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198명)을 실시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읍·면·동사무소와 마을 경로당을 활용토록 하고 무더위 쉼터 5천448개소를 운영했다. 재난도우미 1만4천465명이 예방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1천419억원을 투입해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한 지방하천 75개 지구를 정비했다.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홍수 방어와 자연친화적 하천 관리에 투입했다.

문화·관광분야 함안 문화예술회관에 15억6천만원, 함안·마산문화원에 22억원, 양산·거제·통영·사천·창원도서관에 15억5천만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3억6천만원, 문화마을 조성에 5억원을 투입했다. 2017년 정부 문화관광축제 지정사업에서 신청한방악초축제가 최우수로, 통영한산대첩축제가 우수로, 축제밀양아리랑대축제가 우수로 선정됐다.

복지·보건분야 도 예산의 39.6%인 2조8천802억원을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편성했고, 7대 서민복지 시책을 발굴·추진했다. 7대 서민복지 시책은 ①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②홀로 어르신 생활·주거환경 개선 ③홀로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 확대 ④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 지원 ⑤도내 경로당 연계 안부 확인 ⑥노노케어(老-老 care) 확대 ⑦홀로 어르신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보급 확대다.

경제·산업

경제지표 2017년 기준 수출은 전년 대비 31.4% 증가한 595억 달러, 수입은 2.5% 증가한 176억 달러로 419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3.3%로 전국 실업률 3.7%보다 0.4%포인트 낮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9%로 전국 1.9%보다 0.3%포인트 낮았다.

제조업 2016년 기준으로 경남지역 총생산액은 107조7천953억원이며, 업체 수는 3만5천257개, 종사자 수는 42만9천475명, 생산액은 42조1천932억원이다.

농업 농가 12만7천500가구에 농업인구는 28만 명이다. 경지면적은 논 8만8천ha, 밭 6만ha 등 모두 14만9천ha이다. 미곡생산량은 6만7천895ha에서 35만9천, 맥류생산량은 3천974ha에서 6천117ha이다.

수산업 어항시설은 국가어항 19개소, 지방어항 68개소, 어촌정주어항 337개소, 소규모 항포구 146개소 등 총 570개소이다. 어선은 1만4천469척(전국의 21.6%), 양식어장은 2천279건에 1만1천708ha이다. 도내 수산물 생산량은 539만(전국의 16.5%)이며, 수산물가공업 등록·신고업체는 428개소이며, 냉동냉장업체는 161개소에 생산능력은 16만2천이다.

임업 임야면적은 총 70만1천903ha로 국유림 7만8천586ha, 공유림 4만8천58ha, 사유림 57만5천259ha이다. 임목지별로 침엽수가 31만3천753ha, 활엽수 17만9천608ha, 혼효림 18만4천775ha, 죽림 6천602ha, 무임목지가 1만7천165ha이다.

축산업 가축은 한우 1만1천125농가에 26만1천 마리, 젓소 283농가에 2만4천 마리, 돼지 550농가에 112만4천 마리, 닭은 175농가에 994만7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사회

주택 총 135만8천444호로 주택보급률은 106.7%이다.

도로·교통 고속국도가 9개 노선에 491km, 일반국도 17개 노선에 1천568km, 국가지원지방도는 7개 노선에 421km, 지방도는 40개 노선에 2천7km, 시·군도는 9천374개 노선에 8천45km이며 전체 1만2천532km 중 9천717km가 포장됐고, 포장률은 89.9%이다.

차량 수는 승용차 131만6천801대, 승합차 5만8천12대, 화물차 28만9천250대, 특수차 7천278대로 모두 167만1천341대이며 이중 영업용은 8만2천756대, 비영업용은 158만8천585대이다.

보건·위생 종합병원은 25개소 9천51병상, 병원은 121개소 1만4천603병상, 치과병원 19개소 30병상, 한방병원 7개소 406병상, 요양병원 117개소 2만3천616병상이 있다. 이 밖에 의원(부속의원 포함) 1천542개소, 치과의원 868개소, 한의원 798개소, 조산원 1개소, 의약품 등 판매업소 6천136개소, 보건소 20개소, 보건지소 174개소, 보건진료소 221개소가 있다.

의사 등 의료인 1만9천10명, 약사 1천850명, 의료기사·간호조무사 등 의료인력 1만9천910명이 종사하고 있다. 위생업소는 공중위생업소 9개 업종 1만7천072개소, 식품위생업소 15개 업종 8만6천415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사회·복지 아동복지생활시설 53개소 1천26명, 장애인주거시설 32개소 1천586명, 노숙인시설 47개소 348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개소 183명, 정신요양시설 4개소 736명,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등) 240개소 8천136명이 각각 생활하고 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30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7천29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7만5천430가구에 10만2천305명이며, 한센병 환자는 1천28명으로 25개소의 정착촌에 542명, 재가환자 384명, 생활시설 1개소에 102명이 생활하고 있다.

문화·관광

문화시설 공공도서관 67개소, 영화상영관 29개소 162관, 문화원 20개소, 박물관 66개소, 미술관 9개소, 향교 27개소, 도·시·군 문화예술회관 21개소가 있다.

문화재 국보 11점, 보물 165점, 사적지 51곳, 명승지 12곳, 천연기념물 45점, 국가무형문화재 19점, 국가 민속문화재 12점, 등록문화재 43점, 경남도 민속문화재 21점, 유형문화재 550점, 기념물 255점, 무형문화재 39점, 문화재 자료 627점이 있다.

관광시설 지정관광지 21개소, 관광단지 2개소, 관광특구 2개소(창녕 부곡온천, 통영 미륵도), 관광사업체 1천841개, 관광안내소 61개소(도 9개소, 시·군 52개소)가 있다.

관광 지리산국립공원, 가야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4개 국립공원과 가지산도립공원, 연화산도립공원 등 2개의 도립공원이 있다.

부곡·마금산·가조온천과 해인사, 통도사, 쌍계사 등 유명 사찰이 있으며, 남해 가천 다랭이마을, 진해 경화역 및 여좌천 벚꽃길, 창녕 우포늪, 합천 해인사, 지리산 천왕봉, 함양 다랑논, 산청 황매산 철쭉, 진주 축석루 등이 유명하다.

문화·예술행사 진해군향제, 사천 외룡문화제, 김해 가야문화축제, 원동매화축제, 함안 아라제,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 창녕낙동강유채축제, 산청황매산철쭉제(4월), 진주논개제, 밀양아리랑대축제, 밀치&바다축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꽃양귀비축제(5월), 거제목포대첩기념제전, 보물섬마늘축제&한우잔치(6월), 거제시 바다로세계로, 당항포대첩축제, 하동섬진강대첩축제, 2017 고스트파크, 합천여름바캉스축제(7월), 통영한산대첩축제(8월), K-POP World Festival In 창원, 북천코스모스메밀꽃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함양물레방아길·함양산삼축제, 거창한마당대축제(9월),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마산만날제,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김해분청도자기축제, 거제섬꽃축제, 독일마을맥주축제, 대장경세계문화축전(10월), 거창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12월), 도민예술단시·군 순회공연(연중), 통영 국제음악제(3월), 경남연극제(5월), 밀양 여름공연예술축제(7월), 하동 이병주 국제문학제(9월), 진주가요제(11월),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11월)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매년 정례적으로 열린다.

의회활동

원구성

〈의장〉 박동식

〈부의장〉 최진덕, 정재환

〈정당별 의석〉 자유한국당 49명,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이다.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가 있다.

특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청과 교육청 소관 2017년 제1·2·3회 추가경정 예산, 2017 회계연도 결산, 2018년 예산안 등 총 10건을 심의·의결했다. 2016년 2월 구성된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제19대 대선공약 반영 건의안'을 채택하고 언론홍보 등 활동을 이어갔다.

2017년 6월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선소, 기자재업체 등 현장 방문(3회),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12월 15일 활동을 종료했다. 2017년 12월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간담회, 토론회 등의 활동을 했다.

조례 등 260건 처리로 적극적인 도민 의사 반영 총 147건의 조례안과 각종 건의안 등 26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6명의 도의원이 127건의 도정 질문을 했고, 38명의 도의원이 7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사회복지시설 위문, 농촌일손돕기, 김장나누기 행사 등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분위

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의장단 현지의정활동으로 지역현안 청취와 현안 해결에 주력했다.

활발한 의원 입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 견제 69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제·개정했고,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하선영 의원),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이성용 의원), '경상남도 실종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성애 의원), '경상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황종명 의원),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김윤근 의원),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양해영 의원) 등 총 6건을 제정했다.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처리 요구사항 277건, 건의사항 220건 등 총 497건을 발굴했다.

받아 행정사무를 수행했다.

도제는 해방 이후 미 군정 때도 계속되다가 1946년 8월 1일 전라남도 행정구역에서 분리돼 도(道)로 승격되면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등 2군·1읍·12면이 설치됐다. 제주시는 1955년 9월 1일, 서귀포시는 1981년 7월 1일 각각 읍에서 시로 승격됐다.

2006년 7월 1일 단일 광역행정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폐지되고 자치권이 없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행정시, 7읍, 5면, 31동으로 개편됐다.

면적 2017년 말 기준 총면적은 1천849.1km²로, 남한 전체면적의 1.85%를 차지한다. 용도별 점유율은 경지 28.7%, 임야 47.1%, 대지 3.7%, 도로 4.7%, 기타 15.8% 등이다. 부속 섬은 유인도 8개, 무인도 71개 등 모두 79개다. 해안선 길이는 본섬 415.56km, 부속 섬 136.22km 등 총 551.78km다. 본섬과 부속 섬의 전체 자연 해안선은 359.45km(본섬 250.74km), 항만 등 인공 구조물로 생성된 인공 해안선은 192.33km(본섬 164.82km)다.

자연환경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형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 사면은 경사도가 3~5°로 완만하고, 남북 사면은 5°정도로 약간 급한 경사를 이룬다. 지질은 퇴적암층과 현무암, 조면질 안산암(粗面質安山岩), 조면암 등의 화산암류와 기생화산에서 분출한 화산쇄설암(火山碎屑岩)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부분 흑갈색의 화산재로 덮여 있다.

동물은 한대성과 열대성이 함께 서식한다. 포유류 77종, 조류 198종 등을 비롯해 파충류, 양서류가 각각 8종, 곤충류 873종, 거미류 74종 등이다. 식물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아열대, 온대, 한대식물 등이 수직으로 분포하고 있다. 종류는 2천여 종(백두산 500여 종, 지리산 1천여 종)에 달해 식물의 보고라고 할 만하다.

한라산 일대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제주는 유네스코에 의해 2002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아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달성한 세계 최초의 지역이 됐다. 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이 50여 가지가 넘게 파악될 정도로 제주 생물자원의 가치가 높다.

인구 2017년 말 기준 27만8천203가구 67만8천772명(외국인 2만1천689명 포함)이다. 제주시는 19만8천454가구 49만2천401명, 서귀포시는 7만9천749가구 18만6천371명이다. 전체 인구는 2016년도 26만6천972가구 66만1천190명에 견줘 가구수는 1만1천231가구(4.2%), 인구수는 1만7천582명(2.7%) 증가했다.

Jeju 제주특별자치도


道花 : 참꽃 **道木** : 녹나무

道鳥 : 제주큰오색딱따구리

캐릭터 : 돌이와 소리(돌하르방과 해녀)

도청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도지사 : 원희룡(元喜龍)



개 관

연혁 제주특별자치도는 상고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탐라(耽羅)국 또는 탁라(毛羅)국으로 불리다가 고려 숙종 10년(1105년) 탐라군으로 편입되면서 독립성을 잃었다.

제주(濟州)라는 명칭은 고려 고종(1192~1259년) 때 탐라군을 제주로 개편하면서 처음 사용됐다. 충렬왕 원년(1275년)에 총관부가 설치되면서 제주의 명칭이 다시 탐라국으로 개칭됐고, 충렬왕 20년(1294년) 제주로 복호됐다. 조선시대인 1397년 제주목(牧)이 설치됐다.

일제 강점기인 1915년 5월 제주·정의·대정 3개 군제(郡制)가 폐지되고 도제(島制)로 개편되면서 행정권과 경찰권을 행사하는 도사(島司)를 뒀는데 도사는 전남도지사의 지휘·감독을

제주특별자치도 면적·가구·인구·행정구역

(2017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면적(km ²)	가구(세대)	인구(명)			행정단위			통	리	반
			계	한국인	외국인	읍	면	동			
합계	1,849.1	278,203	678,772	657,083	21,689	7	5	31	514	172	5,381
제주시	978.4	198,454	492,401	478,700	13,701	4	3	19	449	96	4,129
서귀포시	870.7	79,749	186,371	178,383	7,988	3	2	12	65	76	1,252